

“광주 시도시 도약 위해 교통확충·인력확보 필요”

강 시장, AI기업과 현장 대화 AI 사업 정책 방향성 등 논의 “기업간 교류·개발 인력 중요” 시 “2단계 추진, 생태계 조성”

광주시가 인공지능(AI)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교통 확충과 개발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전날 동구 ‘인공지능사관학교 AI카페’에서 38번째 월요대화를 열었다. 이날 월요대화는 광주시가 인공지능 사업 2단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월요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전광명 인트플로우 대표, 함민혁 젠데이터 대표, 인공지능사관학교 4기 졸업생인 신범식 ㈜AI캠퍼스 연구원과 박승주 ㈜엔큐브 주니어, 이지용 인공지능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정창현 학생(조선대), 박수기 광주시의원, 이은경 호남대 AI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김용승 광주시인공지능산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AI 기업들은 광주에서 필요한 것으로 AI 관련 기업 간 교류, 팀장급 개발 인력 등을 꼽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7일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AI카페에서 열린 38번째 월요대화에서 ‘광주 시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광명 인트플로우 대표는 “5~6년 전 광주에서 창업할 때만해도 AI 산업의 불모지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지금은 인프라가 정말 좋아진 것을 체감한다”며 “다만 모든 AI 기업이 겪는 문제인데 탄탄한 매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고객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증 지원 사업처럼 AI 솔루션을 사용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의 활성화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민혁 젠데이터 대표는 “서울에서 광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다양한 기회들을 창출하고 있지만, 함께 성장하고 이끌어 줄 팀장급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최신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서울 기업들을 초청해 기술 등을 교류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또 서

비스개발 기업과 솔루션 판매 기업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4기 졸업 후 광주와 대전에 취업한 직장인은 AI 대표도시 광주에 필요한 것으로 ‘교류와 교통’을 꼽았다.

박승주씨 “웹과 앱 개발자들의 일자리와 지원이 부족하여 대전에 취직했다”며 “오늘 대화를 통해 광주에도 웹과 앱 개발자들의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해외고객 미팅 등 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중요한 고객 미팅은 온라인이 아닌 실제로 만나야 하는데 광주·전남에 직장이 없어 애로사항을 겪는다는 것이다.

기업 대표들은 “한국에서 일본까지 비행기를 타면 2시간인데, 인천에서 광주까지 4시간이 걸린다”며 “중간지점에서 만나긴 하지만 해외 고객을 만날 때 불편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 기업 ㈜AI캠퍼스에서 근무 중인 신범식 연구원은 AI 교육 고도화의 목표를, 정창현 조선대 학생은 AI 관련 경진대회 등 기회 다양화를, 인공지능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이지용 씨는 기아타이거즈와 비엔날레가 스포츠와 예술분야 랜

마크이듯 AI 시대를 맞아 국가AI데이터센터가 새로운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국가AI데이터센터가 광주에 있다는 것은 광주의 큰 강점이자 기회이지만 데이터센터만으로는 광주의 AI 산업을 키울 수 없다”며 “오늘 월요대화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답이 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광주를 명실상부한 AI 대표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요대화’는 강기정 시장과 시민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대화장구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정책방향성 및 문제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295억 원을 투입해 첨단3지구에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국가AI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창업기업 지원, 인력양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의 AI 기업들이 글로벌 협력 등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업성공률이 높은 실증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김영록 지사 “특별자치도 설치로 자치권한 확대”

“지방분권·자치권한 확보해야” 국비 확보·쌀값 안정 등 당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무늬만 지방자치’를 타계하고 이를 전국에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8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고 “권한이 중앙에 너무 집중해있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특별자치도’ 역시 권한이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자치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욕심 갖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만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권한을 제대로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한 2025년 국비 확보와 관련한 노력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부처별로 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인 점을 감안, 부처 확정사항을 파악해 막바지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어느 해보다도 국고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규 사업 반영과 계속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및 사전타당성 용역사업 및 예타사업 통과를 위한 관리에 집중할 것도 주문했다.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농협RPC 재고량이 많아 쌀값 지속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15만 톤 이상 시장 격리를 정부에 건의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국회 차원에서 어필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농민단체와도 잘 협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엘니뇨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올 여름 폭염과 풍수해, 폭우, 태풍 등 올 여름 우려되는 기상변이가 심상치 않다”며 “지



전남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협약 구복규(왼쪽부터) 화순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홍진 포스백스 대표가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서로피서 사이언티픽, 포스백스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전남도 제공**

역별, 분야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 대책을 과도할 정도로 철저히 잘 세워

도 민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오지현 기자**

